

구원의 시제

오늘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구원의 시제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시제는 무엇이나 하면, 성경에서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어떤 때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과거 시제로 말하고, 어떤 때는 구원을 현재 시제로 필요하다고 말할 때도 있고, 미래 시제를 써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시제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을 과거 시제로 표현한 예부터 찾아 보십시오.

에베소서 2 : 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까?

못받은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미 과거에 구원을 얻은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다음은 구원을 미래 시제로 표현한 바울 사도의 다른 고백을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13 : 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로마서 13 :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질문)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까?

못받은 상태에 있습니까?

만약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다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또 다음 구절을 읽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 : 2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구원을 받을 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으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 가라는 말인가요?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또 구원의 필요를 외치는 바울 사도의 절규를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7 :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는 ‘누가 나를 구원해주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구원의 시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말하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구원이 가까이 왔다 ,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말함으로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 말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롬 7:24).

이것은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에 받는 여러 단계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치 못하여 점차로 시간이 흐르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때 그때 마다 구원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믿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 2000 년전에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가?
2.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I. 2000 년전에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가?

2000 년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중생을 하여 얻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한 더 이상의 보속이 필요없습니다. 구원을 위해 더이상의 다른 믿음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구원은 완전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의롭게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칭의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영원한 아들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 받은 사람들이지만 죄를 자주 짓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손발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어저께 온몸을 다 씻었으니 오늘은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개혁 신학자인 R. A. Toray 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은 세방면에서 완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의 세방면에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죄의 책임에서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둘째는 죄의 권세에서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셋째는 죄의 현존에서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1. 먼저 죄의 책임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부터 공부를 하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모두가 죽어야 할 운명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 용어로 죄책으로서의 형벌인 사망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합니다.

원죄와 자범죄에 대하여는 구원론시리즈 첫째주 죄사함의 확신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아 우리가 죄의 책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창조될 때 죽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의 형벌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면 우리는 죄책으로서의 사망의 형벌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사망의 형벌에서 면제되었다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에베소서 1:7 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 : 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죄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사망의 형벌을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히 2:9).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책의 형벌인 사망에서 면제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책으로 인한 사망의 형벌이 면제되었습니다. 사망의 형벌이 영원히 면제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책에서 완전히 면제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할 때 생긴 일입니다. 과거에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은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바울이 에베소서 2:8 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 : 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죄책에서 완전히 면제된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죄책으로서의 사망의 형벌이 면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나 불신자나 모두 지나가는 첫번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후 백보좌 심판 후에 있을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 있을 백보좌 심판 때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자기의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집니다. 믿는자는 이때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인해 영원한 처벌에서 면제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형벌이 면제되었다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의 심판에서 면제되었다는 것을 명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자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영혼은 곧바로 하나님께로 가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영혼은 음부로 가서 예수님의 재림후 있을 백보좌 심판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지 못한 자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자의 차이입니다.

영원한 지옥이나 영원한 천국이나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 결정이 됩니다. 이런 방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책이 제거되고 영생을 받아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8 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8 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에베소서 2 : 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망에서 면제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망이 면제되다는 그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한 사도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5 :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원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영생을 얻었다. 죄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II.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권세에서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믿기 전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편안히 살았는데, 중생하고 죄를 알고 난 후에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중생했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서도 따뜻한 아루목에 누워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중생을 안한 사람이거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입니다. 중생을 하면 죄때문에 괴로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우리 안에서 죄와의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갈등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후 마귀는사람에게 대하여 사망의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창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 : 14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중신토록 흠을 먹을지니라

“중신토록 흠을 먹을지니라” 이 말은 흠에서 온 사람에 대한 권세를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사람에 대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을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히브리서에는 마귀를,

히브리서 2 : 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먹을 수 있는 권세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이냐 하면,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내주하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이것을 죄가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7 : 17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인격화한 죄를 욕이라고 합니다. 이 욕이 각사람 안에서 각개인의 특성에 따라 인격을 형성하는데 그것을 예사람이라고 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쓸데없이 생각이 바쁘게 합니다. 죄에 대한 욕구를 일으킵니다. 세상 쾌락을 즐거워 하게 합니다. 세상 것의 포로로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사망의 길로 자꾸가게 합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마귀가 행사하는 죄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중생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새사람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새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싫어하고 하늘의 것을 좋아 합니다. 욕에 속한 것을 싫어하고 신령한 것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하게 되면 세상의 옛것을 좋아하는 옛사람과 하늘의 새것을 좋아하는 새사람과의 갈등이 일어 납니다. 죄의 권세와 성령의 새사람의 충돌이 일어난 납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생활을 욕구가 크면 글수록 이 갈등은 커지게 되고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7 :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 : 22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로마서 7 :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 :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갈등에서 어찌하든지 신앙생활을 잘해보고자 육신의 힘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없이 굴복합니다. 또다시 시도합니다. 또 굴복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천국으로 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전부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투쟁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정의를 내려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을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며 세상 것을 좋아하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함께 죽도록 만드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 죄는 우리 안에서 그 권세를 잃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조정을 받는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인해 죄는 사람 안에서 그 권세를 행사하는 발판을 잃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죄의 권세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법적으로 여겨주셔서 완전히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사람의 쓰레기를 우리 안에서 치우는 것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현재 싸워야할 일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지만, 그것을 옛사람의 쓰레기를 온전히 치우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벧전 2:2** 에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 : 2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신 죄의 권세에서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것은 장시간에 걸쳐 현재형으로 계속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적용해야할 구원입니다.

III.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의 현존에서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나 하면 죄의 존재, 다시 말하면 마귀의 존재를 아주 성도들의 생활에서 없어지게 하심으로 죄와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하시는 구원으로, 이것은 천년 왕국 후에 있습니다. 마귀를 완전히 불과 유황 못에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 : 7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요한계시록 20 : 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요한계시록 20 : 9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요한계시록 20 : 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 못에 영원히 던져버려”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어 버립니다.

<마귀는 시험의 Agent>

죄없으신 예수님을 마귀는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유혹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죄없으신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는 우리가 칭의되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존재하는 한 죄와의 싸움은 어쩔 수 없이 계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우기 성경은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 말하고(엡 2:3) 지금의 마귀들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마귀를 쫓아내시려고 더 강한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살 때 마귀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 것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순간 사망의 세력은 깨어지고 마귀는 쫓겨 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축출은 천년왕국 후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귀를 왜 완전히 지금 축출하지 않으시고, 천년 왕국후에까지 기다리시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이빨빠진 사자로 만드신 후에 성도를 훈련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참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가 판명됩니다.

고린도전서 7 : 5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의 권세는 부활로 완전히 깨어졌지만 시험의 도구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그 순간 마귀의 세력을 짓밟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신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천년 왕국 후에 불못과 유향불에 완전히 갇힐 것이지만, 부활로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매일 시험하는 자를 무찌르고 있습니다. 귀신을 우리의 마음에서 가정에서 쫓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 에서 볼 때 우리는 하루 하루를, 죄의 현존에서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 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루 하루 그 완전한 죄의 현존에서의 구원의 성취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로마서 13 : 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하루 하루 죄의 현존에서의 구원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여, 더 이상 가감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 안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일들은 남아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구원에 대한 여러 시제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은 완전하지만 구원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는데에 있어선 시간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R.A. Toray 라는 신학자는
죄책에서의 구원,
죄의 권세에서의 구원,
죄의 현존에서의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web-page 로 가셔서 , “좋아요” Button 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 하세요
(twitter 안에서 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 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